

四溟堂說話 研究*

—慶南地方을 中心으로—

孫 貞 姬**

目 次

I. 序 論	2) 慶南地方에 유포되는 四溟堂
II. 歷史 속의 四溟堂	說話
III. 文學 속의 四溟堂	(1) 민족영웅으로서의 四溟堂
1. 文獻說話 속의 四溟堂	(2) 四溟堂 出家 動機로서의
2. 口碑說話 속의 四溟堂	「계모 전치 소생 살인담」
1) 傳說輯 속의 四溟堂	IV. 結 論

I. 序 論

四溟堂은 불교가 꺾박받고 僧侶가 천시되던 시대를 살아왔으면서도 儒學者들이 양반 관료들을 위시한 상층계층과 일반 민중인 하층계층 사이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아왔던 보기드문 인물이었다.

임진왜란과 관련한 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고 있으나,

* 이 논문은 199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지원금을 받아 연구된 것임.

**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四溟堂에 관한 설화 처럼 다양하고 많은 변이를 거쳐 전승층에게 전승되는 이야기도 드물다. 이러한 다양한 변이를 두고 임철호는 사명당은 이여송과 같이 역사현장에서 부정적인 평가나 인식을 받았던 인물도 아니고, 또한 김덕령과 같이 역사현장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했던 비극적인 인물도 아니며, 임진왜란을 통해 자신이 지닌 능력을 충분히 발휘했고 그에 대한 대가도 충분히 받았다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¹⁾

四溟堂을 대상으로 형상화된 설화 작품들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것과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이 완전히 허구화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내용으로는 임란 동안 승병장으로서의 업적, 가동청정과의 對談, 강화사신으로 渡日 중에서의 활약상 등이 대부분이고, 완전히 허구화된 내용으로는 출가 동기, 도술적 능력, 연애담 등으로 나타난다.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도 문헌설화 담당층들은 “객관적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작품을 형성하고, 구비설화 담당층들은 “주관적 흥미”에 관심을 두고 설화를 생성한다. 그리고 완전히 허구화된 이야기들은 구비설화가 대부분으로 기존해 있는 민간의 설화가 수용, 결합, 변이된 것들이 많으며, 사명당과 관련한 독자적인 작품들은 오락이나 흥미성을 위주로 하여 형성되고 있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四溟堂설화에는 우리민족의 역사의식과 민족의식 등이 잘 반영되어 있다. 조선조 儒者 지식인 계층에서 형성된 문헌설화의 사명당설화와 구비담당층들에 의해 형성된 구비문학 속의 사명당설화에서 나타나는 對日感情을 분석해 보면 두 담당층들이 가진 역사의식에 다소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 문헌설화 담당층과는 달리 구비문학 담당층들의 對日感情은 극대화된 敵對意識으로 나타나 이러한 敵對感情 속에서 민중들이 갈망한 영웅은 문학 속의 四溟堂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설화에는 이야기를 형성시킨 설화 담당층들의 역사의식과 역사적 소망들이 무의식 상태에서 스며들어 있다고 하듯이 四溟堂설화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다.

1) 임철호, 설화와 민중의 역사의식, 집문당, 1989, p. 269.

본고의 목적은 四溟堂설화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문학적 의미 등을 역사 속의 사명당과 문학 속의 사명당을 통해 살펴보고, 문헌설화와 구비설화, 특히 경남지방의 구비설화를 통해 사명당설화의 형성과 변이, 다른 설화 등의 수용 양상과 그것이 가지는 의미 등을 살펴 보고자 하는데 있다.

II. 歷史속의 四溟堂

四溟堂 松雲大師 惟政은 조선 中宗 39년인 1544년 10월 17일에 경남 밀양군 무안면 고나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俗姓은 任氏였고 이름은 應奎였다. 豐川 任氏로 그의 가문은 대대로 풍천에서 살았지만 그의 증조부 任孝昆이 문과에 급제하여 掌樂院正으로 대구의 守丞이 되면서 밀양으로 옮겨와 살게 되었다고 한다.²⁾ 이 때는 불교가 정치적으로 매우 핍박받던 시기로 사원은 경제권을 잃었고, 중들은 산 속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숨어살던 시기였다. 이 때에 儒者들은 중을 매우 천하게 여겼으므로 儒者의 집에서 중이 난다는 사실은 매우 희귀한 일이었는데도 應奎 소년은 일찍부터 불가에 뜻을 두고 불교에 귀의하게 되었고, 역사적인 환난 속에서 천시받는 중이 아닌 존경받는 스님으로 그 일생을 마치게 된다.

四溟堂에 관한 기록을 전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四溟堂大師集(7권),³⁾ 奮忠紆難錄(1권),⁴⁾ 慈通弘濟尊者四溟松雲大師石藏碑銘并序,⁵⁾ 密陽表忠祠松雲大師碑銘并序⁶⁾ 八道都摠攝義兵大將 弘濟尊者四溟大師紀續碑銘并序,⁷⁾ 慈通弘濟尊者四溟大師碑⁸⁾ 慈通廣濟尊者四溟堂松雲大師行蹟⁹⁾과 宣祖實錄에 임진

2) 豐川任氏世譜.

3) 광해군 4년인 1612년, 대사가 임전한 2년 뒤에 간행된 것임

4) 영조 14년인 1738에 靑泉 申維翰이 편집하고 다음해인 1739년 7월에 表忠祠에서 開刊되었다.

5) 광해군 4년인 1612년에 許錡이 찬한 비명으로 해인사에 세워져 있다.

6) 영조 18년인 1742년에 李宜顯이 찬한 것으로, 밀양의 무안리에 세워져 있으며, 國家有事時에 맘을 흘리기 때문에 맘흘리는 비로 알려져 있다.

7) 정조 24년인 1800년에 南公轍이 찬한 것으로, 乾鳳寺에 세워져 있다.

8) 1947년 卞榮晩이 찬한 것으로, 海印寺에 세워져 있다.

9) 인조 18년인 1640년에 方丈山人 海眼이 찬한 것임.

왜란과 관련한 사명당의 활약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전술한 기록에 의거 사명당의 생애와 업적을 간단히 살펴보면, 사명당의 탄생은 여느 영웅·걸출한 인물과 다름없이 신이한 태몽¹⁰⁾을 가져, 그가 불과가와 인연을 맺을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다.

7세가 되어 할아버지께 글을 배웠고, 그 후 당대에 이름높은 선비 柳村 黃汝獻을 찾아가서 배움에 임했다.

四溟堂의 出家 연대는 확실히 전해지지는 않으나, 8세,¹¹⁾ 13세,¹²⁾ 15세,¹³⁾ 16세,¹⁴⁾ 17세¹⁵⁾의 설이 있다. 四溟堂의 자작시나 그의 상소문 등을 참고해 볼 때 어머니를 15세에 아버지를 16세에 잃고난 뒤인 17세 쯤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 出家의 동기는 문헌의 “俗學은 賤陋하고 世緣에 膠擾하니 어찌 無漏의 學을 함만 같으랴, 하고 黃岳山의 直指寺로 가서 信默和尚에게 머리를 깎았다.”¹⁶⁾라고 하는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俗學인 儒敎에 대해 인간적인 환멸같은 것을 느껴, 無漏의 學이자 究竟最上의 眞理를 찾아서 出家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四溟堂의 出家 동기는 남달리 총명하고 예민했던 그의 성격으로 보아 부모의 잇달은 죽음 앞에 자신이 이때까지 배워왔던 학문인 儒道로서는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자극받고, 인생의 허무함과 아울러 儒道가 철저히 현실에 바탕을 두었음에 환멸을 느껴, 脫俗世의인 불교에 귀의하였을 것이다.

四溟堂이 黃岳山의 直指寺에 출가할 당시에 直指寺의 주지는 信默和尚이었는데, 하루는 信默和尚의 꿈에 그 절의 天王門 왼쪽에 서 있는 오래된 큰

10) 대사의 어머니인 徐氏夫人이 四溟堂을 낳을 때에 누런 두건을 쓴 金人이 나타나 白雲을 타고 높은 樓臺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한 老仙翁에게 허리를 굽혀 절을 하자 이에 仙翁은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苦海上의 長年 三老인데 어찌하여 와서 절하는가? ”라고 하는 꿈을 꾸고 1년이 지나 四溟堂을 낳았다고 한다. 方丈山人 海眼 撰 朝漁國慈通廣濟尊者四溟堂松雲大師行續.

11) 海眼, 四溟大師行續

12) 許筠, 海印寺 石藏碑文.

13) 東國譯經院, 四溟堂大師集.

14) 金煥泰, 四溟大師의 生涯, 佛敎學報 8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71.

15) 李鍾益, 四溟大師, 法通社.

16) 許筠, 앞의 책.

은행나무 밑에 黃龍이 있는 것을 보았고, 꿈을 꾀 스님이 기이하게 생각하여 은행나무 밑으로 갔더니 어떤 소년이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데리고 와 상좌로 삼았는데 그 소년이 바로 四溟大師였다¹⁷⁾고 했다. 四溟堂이 태어날 때의 태몽이나, 제2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출가 당시와 또 제2의 탄생에서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信默和尚의 꿈 등은 모두 四溟堂이 佛者로서 비범한 인물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四溟堂은 입산한지 1여년 만인 18세에 僧禪科에 합격하여 다시 한번 그의 천재성을 확인시켰고, 이 이후 佛者들뿐만 아니라 당대의 이름난 士類들과도 交遊하였는데, 특히 許荷谷과는 친하게 지냈으며 이러한 인연으로 하여 荷谷의 동생인 許筠이 四溟堂의 碑文을 쓰게 되었다. 四溟堂은 이름난 宰相이나 文章才士들과 친히 지내면서 그의 이름을 士林에 떨치게 되었는데, 당시의 재상이던 李山海와의 詩問答은 지금까지 민간에서 회자되고 있다.

四溟堂의 나이 49세 되던 해인 1592년(宣祖25년)에 壬辰倭亂이 일어났고 이 때 四溟堂은 金剛山の 楡岾寺에 있었다. 임란의 소식을 듣고 몸을 피하여 산속에 있었는데, 미처 피하지 못하였던 스님 수 십명이 倭寇들에 의해 곤욕을 치른다는 말을 듣고 單身으로 楡岾寺로 달려가 글로써 적들을 교화시키고 잡혀있던 스님들을 구하였다. 金剛山으로 되돌아온 四溟堂은 선조가 서울을 떠나 서쪽으로 피난하였다는 말을 듣고 통곡하고는, 금강산 일대 山寺의 스님들을 규합하여 義僧軍을 만들어, 세차례의 큰 戰功을 세워 義僧軍의 副摠攝이 되고 折衝將軍이란 직함¹⁸⁾을 받았으며 또 1593년 3월 27일에 宣祖께서 禪敎兩宗判事를 除授하셨고,¹⁹⁾ 또 4월 12일에는 파격적인 특상으로서 堂上職을 特授하셨다.²⁰⁾

이 해 4월 전쟁은 휴전의 기운이 감돌았으며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강화의 의논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때에 조정의 대신들은 講和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日軍과 明軍사이에서 적극적인 講和의 분위기가 추진되

17) 直指寺事蹟 및 直指寺略記, 英祖 52년 丙申, 汲古字 書.

18) 亂中雜錄 1, 壬辰 十月條, 陞休靜嘉善. 爲八道僧兵道摠攝. 惟政折衝. 爲副摠攝. 大東野乘 6, 민족문화추진회.

19) 宣祖實錄, 卷之 36, 26년, 癸巳 3月 壬午.

20) 宣祖實錄, 26년, 癸巳 4月 丙申 12日.

었으므로, 四溟堂은 조정의 명을 받고 講和를 위한 사신으로 敵陣을 왕래하며 팔목할 만한 업적들을 남긴다. 휴전 중에 적진을 4차례 왕래하는 등 뛰어난 외교적 수완을 보이며 강화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終戰 후에는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 전쟁 포로들을 소환해 오는 등 또다시 빛나는 업적을 기록하였다.

적과의 講和 문제로 승려의 신분인 四溟堂이 이 일을 맡은 것은, 조정의 儒者 관료들 중 누구하나 이 일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었으며, 있다손 치더라도 일본의 야심이나 진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인물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정 상하의 의논이 결국 山寺에 있는 스님 四溟堂에게 모아졌으며, 그로 인해 사명당은 사모하는 스승 서산대사의 奔喪도 치르지 못하고 일본으로 떠나갔다. 이 때의 상황을 두고 선조실록의 史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정에 얼마나 지모가 없기에 왜적의 사신 하나를 감당못해서 서로 돌아 보며 어쩔줄 몰라하는고, 승려가 아니고는 국가의 긴급정책지사를 맡을 사람이 없는가. 堂堂備國의 諸公이 도리어 한 사람 惟政의 지모에 미치지 못해서, 그를 급속히 불러올림으로써 적을 방어할 정책으로 삼는고. 오직 나라 구할 지모를 가진 자는 惟政 한사람 뿐이니 오호 통재로다.²¹⁾

또한 四溟堂이 일본으로 떠날 때, 그 당시 領相인 漢陰 李德馨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그를 송별하였다.

분분한 개구리 구덩이 많다하지만 뉘가 구만리에 바람을 치는 위대함을 알리오. 가시는 길이 때마침 좋으니 마음 조심하실 것이고 말씀하는 것이 속세를 놀라게 하시니 교화의 기운이 생긴 듯 하오이다.²²⁾

李粹光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그의 공로와 조정의 장수들에 대해 부끄러움을 표현하였다.

성세에 명장이 많지마는 기이한 공은 오직 늙은 대사님 뿐이네, 배는 노련의 바다에 가고 혀는 육생의 변을 쏟으리, 요리조리 속이는 오랑캐는 만족함이 없는데 기미하는 것은 일이 위태로울까 염려함이로다. 허리에 찬 한 자루의

21) 宣祖實錄, 권 171, 37年 2月, 史臣曰.

22) 漢陰集, 卷 2, 送松雲付 日本.

긴 칼이여 오늘날 남아 되기가 부끄럽구나.²³⁾

佛僧으로서, 儒者로서, 將軍으로서, 使臣으로서의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던 四溟堂 惟政 松雲大師는 그가 67세 되는 해인 1610년 경남의 합천 해인사에서 대중들을 모아놓고, 4대(地, 水, 火, 風)의 假合인 이 몸은 이제 眞으로 돌아가려 한다. 무엇 때문에 불안하게 오고가면서 幻으로 된 이 몸을 괴롭히는가. 내가 寂滅에 들므로써 大化에 순응하고자 한다²⁴⁾는 말을 하고는 跏趺坐하여 세상을 떠났다. 聖師의 탄생도 보통 사람과는 다른 조짐을 보였고, 죽음 또한 미리 알았으니 참으로 神人이라고 할 것이다.

四溟堂은 崇儒抑佛을 지향했던 조선조에 그것도 그러한 抑佛策이 강화되었던 시기에 승려의 몸이라는 신분으로 어느 儒學者나 관리가 할 수 없었던 국내외적인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의 이러한 업적은 당시 爲政者에게는 부끄러움이나 열등의식 혹은 자기반성적 동기를 마련했을 것이며, 일반 민중들에게는 그와는 상반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전쟁의 참혹함을 겪은 일반 민중들은 전쟁의 책임을 사색당파나 탁상공론적인 행동을 일삼던 당시의 위정자들에게 돌리고 있고, 또 그들은 전쟁 중에 보여준 임금 이하 관리들의 무능한 행동과 백성을 버리고 몽진하는 임금의 반인륜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儒者가 아닌 佛者로서의 四溟堂의 행위는 더욱 위대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이러한 상하층의 미묘한 감정적 차이가 四溟堂說話를 달리 형성시키는 動因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문헌설화의 지향점과 구비설화의 지향점도 다르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다.

III. 文學 속의 四溟堂

1. 文獻說話 속의 四溟堂

조선조 사회가 유교중심적 사회였던 만큼 불교나 불승에 대해서는 상당히

23) 연려실기술, 권 17, 선조초고사본말.

24) 四大假合 今將返眞 何用屑屑往來 勞此幻軀 吾將入滅 以順大化也.

비판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문학 일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조선후기에 간행된 설화집들에는 민간에 유행하던 야담, 일화 등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수집되어 있다. 그러나 공통된 현상으로 승려에 대해서는 그 범위도 한정되어 있고 수록된 내용도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고 있어, 설화의 편찬자가 대부분 유학자로서 지식인 계층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이 보는 시각이 다소 편파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명당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시각의 차이로 인해 지식인 계층이 편찬한 문헌설화에 전재된 사명당설화와 민중들이 구연한 구비문학에서의 사명당설화가 달리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조선후기에 집성된 문헌설화집 속의 사명당설화를 보면, 松雲抗節,²⁵⁾ 僧休靜²⁶⁾ 僧惟政,²⁷⁾ 僧惟政,²⁸⁾ 惟政,²⁹⁾ 僧惟政³⁰⁾ 등이 있다. 이들은 내용면에서 거의 유사하고, 거의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분량도 아주 소략하다. 이 중 於于 柳夢寅이 쓴 「於于野譚」속의 僧惟政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문학적으로 형상화되고 민간전승을 거쳐 윤색되어 있다.

그외의 문헌설화들로는 洪萬宗의 「旬五志」, 「분충서난록」 속에 실려 있는 「就惠文庫」, 고소설 「임진록」 등인데 이들 작품들도 임란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들은 위의 문헌설화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변이되어 나타나고 있어 민간적 사고와 의식을 거쳐 재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前述한 자료들에 의거한 四溟堂說話의 내용으로, 於于 柳夢寅이 쓴 「於于野譚」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진년에 유정은 금강산 楡岾寺에 있었는데, 같은 절의 스님과 함께 왜적이 침범한다는 소리를 듣고 깊은 산 속으로 피신하였다. 왜적이 楡岾寺를 침범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스님 수십 명을 묶고, 금은보화를 찾다가 나오지

25) 정명기편, 한국야담자료집성 1, pp. 676-677, 閑居雜錄 坤.

26) 鷄山談藪 卷之二, 한국야담자료집성 9, p. 237, 僧休靜. 명제는 休靜禪師이지만은 내용은 四溟堂에 관한 것이다.

27) 한국야담자료집성 9, p. 205, 鷄山談藪卷之二, 僧惟政.

28) 한국야담자료집성 11, p. 259, 歷代類編 第七十七編 東野輯史, 僧惟政.

29) 한국문헌설화전집 6, p. 167, 於于野譚 卷 1, 惟政.

30) 한국문헌설화전집 10, p. 53, 靑野護輯 卷 6 宣祖朝, 僧惟政.

- 않으므로 중들을 죽이려 한다는 소리를 듣고 楡岾寺로 향하였다.
2. 유정이 楡岾寺로 가니 왜적들이 창과 칼을 빼고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으나, 유정은 의젓하고 傍若無人하게 행동하니 왜적들이 도리어 괴이하게 여겨 막지 못했고, 여러 적장들이 보통 스님이 아님을 알아보고, 필담으로 서로 대화하였다.
 3. 적장의 七祖에 관한 물음에 칠조가 아닌 六祖임과 금은보화를 내어놓으라는 것에 금은보화가 산 중에 없음을 논리를 세워 이야기하고, 慈悲와 不殺을 원칙으로 하는 법당에서 죄없는 중들을 결박하고 위협하는 부당함을 말해 적장들로 하여금 감복하게 만들었다.
 4. 감화를 받은 적장들은 이 곳은 高僧이 사는 곳이므로 다시는 침범하지 말라는 글을 써서 부치고 유점사를 물러갔으며, 이 이후 왜병들이 다시는 그 곳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한다.
 5. 조정에서는 유정을 僧兵將으로 제수했고 유정은 전쟁에서 승군을 이끌고 많은 戰功을 세웠다. 또 가등청정의 적진으로 가 遊說했는데, 가등청정이 당신나라는 무엇을 최고의 보배로 삼느냐고 물었을 때, “청정의 머리를 보배로 삼는다”고 대답하여 청정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6. 전쟁이 평정되고 강화를 위해 일본으로 갔을 때 덕천가강이 緇子 이만근을 주었으나 사양하였지만, 강권함으로 부득이 받아서는 그것을 대마도주에게 다주고 돌아왔다. 조정에 돌아와서는 승군을 모아 역사를 도왔고, 70에 치악산에서 죽었고 문집이 있다.³¹⁾

위의 내용은 사명당문집이나, 선조실록 등에 있는 것으로 거의 역사적 기록에 가깝다. 이 기록을 유의해 볼 때 사명당은 용기와 충의, 절개 등이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데 인색하지 않다. 그러나 사명당과 대담했던 일본인들의 인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않을 뿐만 아니라 사명당과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설정하고 있어 그들도 사명당과 동일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유점사에서 만난 왜장, 보배문답을 나눈 가등청정, 강화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대담했던 덕천가강 등은 모두 소인이 아니며, 설화의 표면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들도 또한 훌륭한 인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직접 전쟁을 겪고 참담한 현실에 직면했던 구비담당층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것은 위정자나 사대부 계층이 가지는 역사의식의 소산으로 임란 당시의 사회적 현실과 왜에 대한 비판이나 저항의식이 결여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1) 柳夢寅, 於干野譚, 한국문헌설화전집 6, p. 167, 惟政.

홍만종이 쓴 「旬五志」의 내용을 보면, 「於野譚」의 내용 보다는 좀 더 허구화되어 있다. 그리고 사명당이 일본에 사신 갔을 때 있었던 일화들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흥미소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 惟政이 조정의 명으로 일본에 적정을 탐지하러 갔다. 일본 사람들은 본래부터 惟政을 존경해 오던 터라 그의 절개를 시험해 보고자하여 항복하라고 위협했다.
2. 惟政은 당당히 “나는 우리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이제 이웃나라에 사신으로 왔소. 그런즉 그대들은 내 몸을 능멸히 여겨서는 안되며, 또 내 무릎은 그대들을 위해서는 굽힐 수가 없다.”고 하였다.
3. 왜인들은 이 말을 듣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장작불을 화로에 피워놓고 들어가라고 하였다. 유정은 안색의 변함없이 뛰어들려고 하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화로에 불이 금시 꺼지고 말았다. 그것을 보고 일인들은 “저 사람은 신이로군.”하고 유정 앞에서 절을 하며 生佛이라고 칭하였다.
4. 이 이후 그들은 금의자를 만들어 유정에게 앉게 하고 변소에 갈 때도 모시고 다녔다.
5. 關白인 풍신수길이가 유정에게 물기를 “그대의 나라에는 무슨 보배가 있소?”하니 유정이 “우리나라에는 아무 보배가 없소.”하고 대답하였다. 또 수길이가 “그러면 그대의 나라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요?”하자 유정은 정중하게 “우리 조정에서 구하는 것은 오직 그대 관백의 머리요.”하였다. 이 말을 들은 수길은 칼을 뽑아들고 노여워하였으나, 유정은 태연히 의자에 앉은 채로 자리도 옮기지 않으니, 수길은 곧 그의 의연한 태도에 감탄하여 물러서서 사과했다.
6. 돌아올 때 관백이 유정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 유정은 “우리나라에 있던 부처의 영정을 돌려주었으면 가지고 가겠다”고 한다. 관백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작지만은 좋은 보배가 많은데 하필 부처의 영정을 가지고 가려하느냐”고 하자 유정은 “이 부처는 영험이 있어 바람을 빌면 바람이 일고, 비를 빌면 비가 오며, 모든 재앙을 물리치고 상서로운 일을 가져다주는 까닭에 내가 이제 돌려달라는 것이요.”하였다. 이 말을 들은 관백 이하 신하들은 “대사도 능히 바람도 부르고 비도 부르면서 하필 부처의 영정을 돌려달라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하므로 유정은 그냥 돌아왔다.
7. 그러나 이 이후로 왜적은 다시는 우리를 만만히 보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송운의 필적을 보면 중한 값을 주고 사들여 보배로 알고 간수한다.³²⁾

「旬五志」에 실린 내용을 보면 四溟堂이 조정의 명을 받고 일본으로 講和使臣으로 간 것은 사실이나, 다른 모든 기록들은 허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四溟堂이 일본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풍신수길은 죽었고, 德川家康이

32) 洪萬宗著, 李民樹譯, 旬五志, 을유문화사, pp. 246-249.

관백으로 있을 때인데, 여기서는 四溟堂이 풍신수길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리고 四溟堂을 說寶和尚으로 부르게 된 “네 머리가 보배”라는 말도 풍신수길이 아닌 가동청정이며, 일본에서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생포에서 있는 1차회담에서의 일화인데 마치 일본 체류 중에 있었던 일처럼 이야기하였다.

홍만종도 임란을 겪었던 몸으로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허구라는 점을 모르진 않았겠으나, 민간에서 전승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민간에서는 사명당과 왜왕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사명당을 묘사했으며, 사명당 일인이 왜왕을 이김으로 일본 전체를 이겼다는 승리감을 표출하고 있어 이것은 민중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왜왕으로 묘사된 풍신수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긍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 문헌담당층의 의식이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閑居雜錄』에 실린 「惟政抗節」의 내용은 「旬五志」의 내용과 동일한데, 풍신수길이 관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동청정이 관백으로 나오는 점만 다르다.(關白清正問政曰 朝鮮有何寶)

『鷄山談藪』에 실린 「僧休靜」은 명제는 休靜禪師이지만은 실상의 내용은 惟政에 관한 것으로, 이야기의 전반부는 惟政이 전쟁 중(명나라의 심유경과 가동청정과 화친 성립이 진행되는 동안 잠시 휴전상태에 있을 때임)에 가동청정의 적진에 드나들면서 회담할 때의 逸話가 삽입되어 있다.

惟政以入賊陣 還兩王子又探賊情 清正問 爾國有寶乎 政答曰 我國無他寶 惟以汝頭爲寶 清正曰 何謂也 政曰 我國購汝頭金千斤邑萬戶 非寶而何 清正大笑…

후반의 내용은 일본으로 講和使臣으로 갈 때의 것으로 「旬五志」의 내용과 大同小異하다. 關白은 풍신수길이나 가동청정, 덕천가강의 어느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關白으로만 서술되었으며, 關白의 머리를 보물로 삼는다는 부분도 없다. 이것은 전반부에 가동청정의 머리를 보물로 삼는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 실린 기록들은 역사적인 사실과 거의 일치한다.

「청야만집」에 실린 「僧惟政」의 내용은 惟政이 僧兵將으로 倭將인 가동청

정과 담화했을 때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분충서난록』에 실린 「취혜문고」의 내용은 『순오지』의 것 보다는 더욱 허구화되어 있고, 이야기에서 들어나는 역사의식도 훨씬 민중적으로 변이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1. 송운이 서산대사의 입적 소식을 듣고 분상하러 가던 중 어명을 받고 적정의 탐지와 화친을 목적으로 일본에 갔다.
2. 왜인들이 성대하게 환영하고, 송운이 지나가는 도읍 삼십 리 길에 시를 적은 병풍을 쳐놓았는데 송운은 지나가면서 그것을 다의웠다.
3. 객관에서 접반사들과 시를 논하면서 병풍의 시를 다의우니 왜인들이 놀라서 왜왕에게 보고하였다.
4. 왜왕은 송운의 도술을 시험하고자 유리를 깔고 포악한 코끼리와 독사를 넣고 들어가 앉으라고 하였다.
5. 송운은 염주를 던져 유리임을 확인하고 들어가니, 왜인들은 그 지혜에 탄복하였다.
6. 왜왕은 자기를 만나러 오는 유정에게 솟불로 달군 철마를 타고 들어오라고 하였다.
7. 송운이 서쪽을 향해 묵도하니 비가 쏟아져 솟불이 꺼졌다.
8. 왜인들은 송운을 생불이라고 하여 금련을 내어 내정으로 모시고 잔치를 베풀고 송운을 따랐다.
9. 삼천을 유람한다는 핑계로 왜국을 정탐하였다.
10. 돌아올 때 왜인들이 많은 보배를 주었으나 받지않고 화친과 청정의 머리, 포로의 소환을 요구해 포로 삼천을 데리고 귀국했다.
11. 선조가 크게 칭찬하고 일품의 벼슬을 하사하니 3일을 머물다 가야산으로 들어갔다.³³⁾

취혜문고의 글은 앞에서 열거한 문헌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병풍 암송 화소와 코끼리와 독사 화소, 철마 화소, 포로 소환 화소, 가등청정의 머리 화소가 들어 있다. 이러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민간적 사고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중 철마화소를 제외하면 불가능한 일만도 아니다. 유학자로서 상당한 지식을 갖추었으며 암기력과 지혜가 뛰어난 사명당이라면 가능한 일이다. 물론 왜인들의 시험 자체가 허구이긴 하겠지만 이 설화의 형성은 있을 수 있는 일을 형상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취혜가 사명대사의 제사로 스승 사명당을 높이고 영웅화하려 했다는 의도와 함께

33) 申維翰撰 安啓賢譯, 분충서난록, 현대불교신서 19, pp. 158-161.

민족의식에 철저한 민중들의 사고를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문학적인 윤색을 거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순수한 구비문학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왜왕과 왜인들에 대해서는 극도의 적대심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왜인들의 여러가지 시험과 정은 사명당의 도술을 시험하기 위한 장치이지 꼭 죽이려는 의도가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구비문학에서는 오직 사명당을 죽이기 위한 의도로 이러한 장치들이 필요한 것으로 설정되고 있다.

고소설 「임진록」에 전하는 四溟堂에 관한 내용은 四溟堂의 神術과 講和使臣으로서의 업적에 관한 것으로 앞의 다른 설화들과는 달리 완전히 허구화되어 있어, 四溟堂은 사람이 아닌 神人으로 묘사되어졌고, 대일감정도 극도로 敵對化되어 나타나고 있다. 임란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피해와 적대감을 이 한편의 이야기로 다 갚으려고 하는 恨풀이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구리방석 화소와 철화방 화소, 삼릉과 일본 함물 화소, 인피삼백장과 불알 삼두 화소는 어느 문헌설화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완전히 허구화된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화소의 첨가는 실제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四溟堂 한 사람이 일본에 완전히 복수하고 일왕을 굴복시키는 장면을 통쾌하게 펼치는 장치로, 감정적으로나마 전쟁에서의 승리를 체험한 것이다.³⁴⁾

「임진록」의 내용과 유사한 것들이 구비설화에서 주로 회자되고 있으며, 이 때의 四溟堂은 바로 민족적 영웅인 것이다. 임진록의 내용이 구비설화에 유포된 것인지, 임진록이 구비설화를 반영한 것인지 하는 선후의 문제는 파악할 수 없으나 채록된 구비설화에서 왜로 사신간 사명당의 업적에 관한 내용은 대체로 이 이야기를 벗어나지 못한다.

문헌설화 속에 전하는 사명당 설화 중 대체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는,

1. 楸岾寺에 들어가서 왜적들을 감복시켜 왜장 스스로가 “이 곳은 高僧이 계시는 곳이니 다시는 침범하지 말라”는 현판을 붙인 일.
2. 왜장 가등청정과의 회담 때 보여준 담대한 행동과 “說寶和尚”으로 불리게 된 전후의 사연에 관한 것.
3. 일본으로 강화사신으로 들어가 화친을 성립시키고, 일왕을 비롯한 사

34) 임진록, 한국고전문학대전집 3, 세종문화사, pp. 15-47.

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로 인해 사명당의 필적이 비싼 값으로 거래되어 보배로 취급된다는 것.

4. 조선인으로 일본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수용해 왔다는 것.

실제 입관에서 중요한 인물들의 일화나 설화들이 주로 왜구들과의 전투에서 올린 공적들이 논의되는데 반해, 사명당은 승병장으로서도 눈부신 활약을 하여 많은 戰功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헌설화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은 주로 일인들과 대화를 통해 얻은 성과이다. 이것은 소외된 계층에 있었던 승려의 몸으로 유학자들이나 관리들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했던 일인들에 대해 싸우지 않고 그들을 감복시키고 어떠한 불리한 경우에 있어서도 위축되지 않는 고매한 인품때문일 것이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닌 허구화된 四溟堂 說話의 내용으로는,

1. 화로불과 철화마의 이적
2. 금의자 화소
3. 동래부사의 목을 뱀
4. 병풍의 글 압송
5. 구리방석 화소
6. 철화방의 이적
7. 유리 아래에 있는 포악한 코끼리와 독사를 알아 봄.
8. 일본 함몰과 일왕 굴복 화소
9. 인피 삼백장과 불알 삼두 화소

허구화된 이러한 이야기가 추구하는 것은 四溟堂을 초인간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 만들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가진 四溟堂이 왜국을 통쾌하게 이기고 왜왕 이하 여러 신하들이 四溟堂 한 사람에게 무릎꿇음으로 인해 전체 조선인이 느끼는 카타르시스적 감정 때문일 것이다. 민간영웅이나 이인의 탄생은 입관을 겪고난 뒤가 많으며, 이러한 민간영웅의 활약도 대부분 “왜구의 물리침”에 있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四溟堂 說話도 또한 그러한 차원에서 성립된 것이다.

이상에서 문헌설화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성립시키고 있고, 초기의 문헌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조선조 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명당은 그들과 사상적인 면에서 대립되고 있는 불승이란

점에서 그의 업적에 대한 설화적 윤색을 원하지 않았으며, 사명당의 업적이 평가될수록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무능이나 부끄러움이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헌설화 속에서 문헌담당자들이 일본 즉 왜장이나 가등 청정, 풍신수길 등에 대해 가지는 감정도 극도로 적대화된 것이 아니라 사명당과 동등한 인품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역사 의식의 결여에서 빚어진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於于野譚」의 내용이나 조선후기 야담집에 실린 내용을 벗어나 「旬五志」나 「就惠文庫」의 내용에 이르면,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는 있으나 변이된 내용이나 허구화된 것들이 많이 있어, 이 설화들은 바로 민중들의 사고를 거쳐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변이되거나 첨가된 내용들은 사명당을 민족적 영웅으로 만들고 민중의 대변자로 형상화시켜 놓았다. 이러한 현상은 임진록 속의 사명당일화에 가서 더욱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旬五志」나 「就惠文庫」 등에서 나타나는 對日感情은 여전히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호의적이어서 민중들의 사고와는 괴리를 가져왔다.

2. 口碑說話 속의 四溟堂

구비설화 속의 四溟堂說話는 문헌설화의 대부분이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허구화된 것으로 이분되어 있다. 이처럼 사명당설화의 다양성은 시간적으로 보아 전승의 기간이 길었음에도 이유가 있겠으나, 민중들은 역사 속의 인물인 사명당을 민족의 구원자나 영웅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구비설화 속의 사명당설화는 전설집 속의 사명당설화와 경남지방에 유포되고 있는 사명당설화로 나누어 고찰하겠다.

1) 傳說集 속의 四溟堂說話

전설집 속의 사명당설화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사명당설화 즉 강화사신으로 渡日해 왜왕과 대결하는 이야기 등은 그 증거가 남아있지 않고, 그의 사명당 관련 설화들에는 증거를 남기고 있어 전설적인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1. 사명당은 젊은 시절에 유학을 공부하던 선비로, 그에게 형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으므로 조카를 맡아서 길렀다. 사명당은 어린 조카를 친아들 이상으로 귀여워했는데, 부인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갖은 구박을 하였다.
2. 어느날 사명당은 잣더미 속에 파묻혀 죽어있는 조카를 발견하고 부인을 불러 불었다. 부인은 “당신이 그 애만 너무 귀여워하기에 미워서 죽었다”고 태연히 대답하였다. 인생에 허무를 느낀 사명당은 그 길로 부인을 내쫓고 집을 불사르고 홀몸으로 대흥사란 절에 들어가 중이 되었다.
3. 금강산의 서산대사가 고승이라는 말을 듣고 찾아가 제자가 되고, 몇 해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국의 사찰에 사발통문을 돌려 의승군을 모아 적들과 싸웠다.
4. 왜장인 가등청정이 사명당의 명성을 듣고 만나보기를 청했다. 사명당은 이에 응해 아무런 무기를 가지지 않은 채 왜병의 진으로 향하였다. 왜병들은 사명당의 기를 꺾게 하려고 사명당이 오는 수십 리에 시퍼런 창 칼을 높이 쳐들고 있었으나 사명당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당당한 걸음으로 걸으니, 기가 꺾인 쪽은 오히려 가등청정이었다. 사명당과 對峙한 그는 “당신 나라의 보물이 무엇인가” 물었다. 사명당은 “천금과 만호가 걸려있는 당신 머리가 보물이라”고 대답하며 크게 웃었다.
5. 팔년 간의 왜란이 끝나고 일본과의 강화를 맺기 위한 사신으로 사명당이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에서는 사명당의 재주를 두려워하여 사명당을 죽이기로 하였다.
6. 사명당이 일본에 도착하자 쇠집에 들게하고 며칠동안 계속 불을 뿜으나 사명당은 얼음 빙(氷)자를 써서 사면의 벽에 붙이자 오히려 방에 성애가 끼었으므로 일인들을 놀라게 했다.
7. 실패한 일본인들은 이번에는 얼음집에다 가두었다. 사명당은 불 화(火)자를 써서 사면의 벽에다 붙이고 더워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으므로 일인들은 또 놀랐다.
8. 일본인은 다시 조그만 방에다 사명당을 가두어 놓고 사방에서 활을 쏘아대었다. 그러나 날쌔게 화살을 피해 조금도 다치지 않았으므로 결국 사명당을 죽이기에 실패한 일본인은 일왕과 직접 담판하도록 하였다.
9. 사명당의 신기한 재주와 도술에 감탄한 일왕은 죽일 생각을 버리고, 그 후부터 아주 정중하게 사명당을 대접하였다. 그래서 사명당은 일왕을 굴복시키고 많은 공로를 세우고 돌아왔다.³⁵⁾

이 설화의 구성은 모두 허구화되어 있다. 전반부에 사명당의 가계와 출가의 동인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여느 설화와는 달리 독특한 것으로

35) 四溟堂에 얽힌 전설, 박영준, 한국의 전설 1권, pp. 303-307.

극적인 긴장감을 자아낸다.

사명당은 결혼을 하지 않고, 학문적인 만족을 찾아 소년의 몸으로 출가를 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명당이 결혼을 하였고, 불쌍한 자기 조카를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살해한 부인의 행동에 대해 인생의 허무와 참담함을 느껴 부인을 내쫓고 집을 불살라 속세와 인연을 끊고 출가를 한다는 지극히 극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 전반부의 이야기는 경남지방에 흔히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사명당의 후처가 전처의 소생을 죽이거나 사주하고 여기에 인간적인 환멸과 허무를 느껴 출가하게 된다. 이러한 “계모 전처 소생 살인담”은 설화상에서 사명당의 도술적인 능력 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흥미를 끈다. 이 화소는 후술할 경남지방에 유포되는 사명당 설화에서 다시 詳論하겠다.

후반부의 이야기는 임진록에 실린 이야기와 大同小異하며, 전반부가 사명당의 인간적인 면을 들어내었다면 후반부는 사명당의 도술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명당을 극적인 민간의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반부와 같은 극적인 출가 동기가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1. 사명당은 휴정의 제자로 의병을 일으켰고 도술이神通한 중으로, 병신년에 일본에 강화사로 들어갔다.
2. 일본의 관백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를 위력으로 꺾어보겠다고, 사명당을 흰눈이 내리는 깊은 산속에 감금시키고 10여일 동안 먹을 것을 주지 않았으나, 사명당이 앉은 자리에는 눈이 내리지 않고 얼굴에도 화기가 돌며 조금도 주린 빛이 없었다.
3. 히데요시는 그가 예사 중이 아님을 알고 인마로 모셔오도록 명령하고, 그가 오는 길가에 일본에서 보배로 삼고 있는 진시황제 때의 책으로 만든 병풍을 십 여리에 걸쳐 쳐놓게 하였다.
4. 히데요시의 집에 이튼 사명당은 “장군의 명성과 도량으로 타국 사신을 마치 옛날 중국 한나라 때 흉노가 소무에게 하던 법을 쓰려하니 실로 가석한 일이다”라고 하니 히데요시는 사과하였다.
5. 히데요시가 원하는 술과 음식을 모두 먹고도 취하거나 배불러 하지 않았다. 이에 히데요시가 “선생님은 어찌 춥고 배고픔을 모르십니까?”하고 묻자 사명당은 “춥고 덥고 배고프고 배부름은 속인들이나 염려할 일이외다” 하였다.
6. 히데요시의 태도가 누그러지자 사명당은 강권하여 강화를 성립시키고 조약서에 서로 도장을 찍었다.

7. 히데요시가 길 옆에 세워놓은 병풍을 보았느냐고 묻자 사명당은 그 병풍은 우리나라에서는 삼척동자라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웅대하자 히데요시는 스님들은 거짓말을 모른다는데 선생님은 거짓말을 한다고 하였다. 이에 사명당은 그 병풍의 귀절을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외우니 히데요시와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였다.
8. 일본인들은 사명당의 높은 덕과 학행을 흠모하여 사당을 짓고 봉사하였다.³⁶⁾

이 설화는 문헌설화나 다른 구비설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물론 허구화된 것이긴 하나 그 내용이 터무니없이 황당무계한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사실이고, 高僧이라면 감내할 수 있는 사건들이다. 눈이 내리는 산 속에서 10여일을 굶는 것이나, 두 말의 술을 마시고, 10여인이 먹을 음식을 혼자서 먹는 정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그리고 진시황제 때의 책을 병풍으로 만든 그 내용도 불가의 학문 뿐만이 아니라 유교에도 깊이 정진했던 사명당으로서는 능히 암송할 수 있는 일이다. 사실 사명당의 천재성, 특히 암기하는 재주는 이미 증명된 바 있다. 그가 젊은 시절 許 苧谷(허균의 중형인 봉을 이름)과 韓文의 「最鏞篇」을 한번 보고 외우기로 약속하고 그것을 외우는데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³⁷⁾고 하는 일화도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니 그 병풍을 암송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병풍 암송 설화도 아마 苧谷과의 일화로 인해 기인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이야기는 허구화된 것이긴 하나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도를 닦은 高僧이라면 가능한 일로 이야기를 구성하여 사명당을 더욱 신뢰 받을 수 있는 민간영웅으로 만들고 있다.

이외에 사명당 관련 설화들을 보면, 임진왜란과 관련한 강화사신으로서의 사명당 뿐만이 아니라, 동래 금정산성에 침입한 왜구들에게 물병을 던져 가까이 오면 물병의 목이 떨어지듯 너희의 목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여 왜병을 물리친 이야기,³⁸⁾ 이러한 증거로는 지금도 동래 범어사 금정산성의 미륵암 뒤 바위 벼랑 중간 쯤엔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좁고 긴 구멍이 세로로 뚫려있거니와 그것이 바로 大師가 旗를 꽂았던 자리라고 한다.

36) 四溟堂의 神術, 朴榮權, 한국의 전설 9권, pp. 93-95.

37) 海印寺 四溟大師石藏碑文.

38) 김열규저, 한국의 전설, 중앙신서 67, p. 84.

서산대사와 도술을 닦는 과정에서 덜 성숙되어 더욱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사명당³⁹⁾의 모습도 있고, 물이 귀한 마을의 착한 부인에게 감동되어 그 마을에 우물을 만들어 주어, 먼 곳까지 물을 길러 가는 수고를 덜게 한 도사로서 등장하는 사명당⁴⁰⁾의 이야기 등 매우 다양하다.

구비설화 속에 등장하는 사명당의 모습은 거의 모두가 허구화되어 있으나 문헌에서와는 다르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영웅의 모습과 있을 수 있는 일을 하는 高僧으로서의 모습이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회노애락의 감정을 가진 인간적인 모습으로서 더욱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2) 慶南地方에 유포되고 있는 四溟堂說話

(1) 民族英雄으로서의 四溟堂

경남지방에 유포되고 있는 사명당설화는 더욱 다양한 양상을 띠고 전승된다. 밀양의 아랑전설과 결합된 것도 있고, 사명당의 활약을 선조임금이 아닌 숙종임금 때로 잘못 구술한 것이나 강화사신으로서의 사명당의 업적들이 임란 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등 시간적인 개념이 희박한 구비담당층들의 구술 특징들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으며, 또 경남 의령에서 채록된 사명대사 일화는 흔히 알려진 사명대사의 이야기와는 매우 다른 것으로 역사 속의 인물과 전설 속의 인물, 가공의 인물들이 결합하여 한 편의 장대한 전쟁소설이나 순정소설과 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 등 다양하다.

1. 사명대사 용규는 경남 밀양군 무안면 개나리 고개인 사군자초당에서 태어났다. 10여세가 되어 조부와 부친이 잇달아 죽고 혈육이라고는 누님 한 분밖에 없었다.
2. 그 당시에 밀양으로 낙향해 있던 황유촌선생을 스승으로 삼고 수학했는데, 유촌선생의 따님이 사명당 용규를 사모하였다.
3. 밀양의 박부사한테 아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부사는 아랑의 짝을 찾기위해 백일장을 열었고 장원으로 사명당 용규가 차지했다. 아랑은 사명당을 보고 사모하여 부친에게 사명당에게 마음이 통함을

39) 서산대사와 사명당, 박영준, 한국의 전설 3권, p. 219.

서산과 사명, 한국고전문학 대전집 7(설화편), pp. 102-107.

40) 사명당의 우물, 박영준, 한국의 전설 10권, p. 254.

고하였다.

4. 박부사는 직접 말하기가 곤란해, 백일장의 시험관이던 유촌선생에게 중매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5. 박부사와 유촌의 이야기를 몰래 들은 유촌선생의 딸은 부친에게 사실은 자신이 사명당을 사모한다고 하였다.
6. 유촌은 사명당에게 딸의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박부사 딸의 이야기를 하니, 사명당은 유촌선생의 딸에게 마음이 있었으므로 자신의 마음은 판데 있다고 하여 거절한다.
7. 다시 박부사가 유촌선생을 찾아와 딸 아랑이 식음을 전폐하고 사명당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함으로, 사명당은 사정을 딱하게 여겨 아랑을 찾아간다.
8. 사명당을 본 아랑은 시간은 정할 것 없고 항상 사명당이 다니는 개나리 고개가 보이는 동헌 뒤산 대밭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매일 그 곳에서 사명당을 기다렸다.
9. 이러한 사정을 안 통인 한 명이 사명당을 기다리고 있는 아랑을 겁탈하려고 하여, 아랑은 그 곳에서 절개를 지키고 죽었다.
10. 사명당은 이 일로 자극을 받았고, 그 때 마침 아버지가 죽었으므로 시묘를 살고 있는데, 한 중이 찾아와서는 구슬을 꺼내서 반으로 갈라 서로 한 쪽씩 가지고는 말하기를, 시묘가 끝나거든 이 구슬을 따라오라고 하였다.
11. 구슬을 받고난 뒤부터는 한시도 시묘가 살기 싫어졌으므로, 집으로 돌아와서 박아랑의 일, 자기를 사모하고 있는 유촌선생의 딸과 불산댁 따님에 관한 일을 일기로 썼었는데, 그것을 누나가 보고는 꾸중을 하였다. 그 길로 누나에게 중이 되려 간다는 편지를 남기고 집을 떠났다.
12. 집을 떠나 정처없이 걸던 사명당은 전불산댁에서 유숙하게 되고, 사명당을 사모하여 병이 나 있던 딸은 사명당으로 인해 병이 낫았고 둘은 동숙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명당은 중이 되려 떠난다고 함으로 불산댁 딸은 자기도 절개를 지켜 청춘을 보내겠다고 한다.
13. 그 길로 사명당은 직지사로 찾아가 화상스님을 만나 수제자가 되었는데, 마침 불산댁 딸이 사명당을 찾아와 자주 만났으며, 사명당의 누나와 유촌선생의 딸도 사명당을 따라 중이되고자 하여 직지사 위의 암자에 머물렀다.
14. 불산댁 딸을 만난다는 사실이 탄로되어 직지사에서 쫓겨난 사명당은 양산 통도사 부근의 굴에 들어가 죽기를 작정했으나, 그 때 나라에서 승방에서 진사를 낸다는 시험이 있었고,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사명당 밖에 없었으므로 사명당을 불러 시험을 치르게 하니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다.
15. 사명당을 사모하던 두 여자와 누나는 직지사의 신묘화상을 만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 남해의 해상사호한테 가서 전법을 배우라는 명령을 받고, 남해의 사호선생들에게 가서 전법을 배웠다.
16. 사호선생 중에 천문이 전문인 선생이 죽으면서 “내일 거복선을 이끌고 여수 앞바다로 가라”고 함으로 세 여자가 거복선을 타고 여수 앞바다로

갔는데 거기서 이순신 장군을 만나 거북선도(圖)를 전해 주었다. 이순신 장군은 이 거북선도를 보고 거북선을 장안해 만들었다.

17. 이 세 여자는 각기 남장을 하고 불산댁 딸은 홍의장군, 사명당의 누이는 이순신장군, 유촌선생의 딸은 권율장군의 아장 즉 모사가 되어 각기 장군들을 움직였다.
18. 특히 홍의장군 광재우와 불산댁 딸은 이종 관계로 홍의장군을 병법으로 훈련시키고 자신이 입었던 붉은 옷을 입혀주어 홍의장군이 되었으며, 이 세 여자를 자운선녀라고 부른다.⁴¹⁾

위의 설화는 사명대사 일화란 표제에도 불구하고, 사명대사가 중심인물이라기 보다는 사명대사를 사모하는 네 여인들이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 후반부의 이야기에서는 사명당의 활약이나 결과는 서술되지 않고 여인들의 병법 수련과정과 임란 동안 활약했던 실존인물들인 이순신, 권율, 홍의장군 등을 여인들과 관련시켜 이야기를 종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사명당이 주인공이란 입장에서 보면 완결되지 못한 미완성 설화라고 할 수 있겠다.

사명대사의 생가가 밀양 개나리이며, 처음 직지사에서 중이 된 것, 승과에 합격한 것 등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나 다른 모든 부분의 이야기는 허구화되고 있다.

위의 설화와 비슷한 내용이 밀양에서 채록되고 있는데,⁴²⁾ 이 채록 자료를 보면 동일한 이야기인 것 같으나 전술한 내용 보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성도 갖추고 있다.

아랑의 이름이 윤동옥으로 나타나며, 사명당에게 구혼했으나 거절당한 동옥에게 그 관아의 사령이 유모를 매수해서 동옥을 겁탈하려 하니 동옥은 정절을 지키다 죽어 아랑의 사당을 만들었다고 하는 아랑전설의 일부가 첨가되었고, 전불산댁 딸과의 만남도 사명당이 서산대사를 만나 불가에 뜻을 두고 직지사를 왕래하다 날이 저물어 전불산댁에 세 번을 유하게 되었고, 이 때 그 불산댁 따님이 사명당을 보고 사모하게 되었다는 전후 사실이 명

41) 구비문학대계 8-11(경남 의령군), pp.212-229, 사명대사 일화(전편)-홍의장군을 가르친 불산댁의 딸(후편).

42) 사명당, 1988년 8월 28일 경남 밀양군 상동면 평유리, 崔鉉彦(남 79세) 김승찬 채록.

백하게 들어나고, 사명대사의 출가 동인도 부모의 시묘살이를 하던 중 삶과 죽음에 대한 근원을 궁구하며 답답하게 여기던 중 서산대사를 만나 서책을 얻어 시원히 깨닫게 되어 출가하게 되었다는 등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랑의 전설이 사명당 설화에 삽입되어 전설적 인물인 아랑이 실존인물인 것 처럼 채색되고, 비극적인 여인 아랑이 사명당에게의 구혼에서 실패하게 됨으로 그러한 사건을 겪게 되었다는 구성에서 더욱 비극적인 여주인공이 되었으며, 사명당에게는 이것이 충격적인 기억이 되어 출가를 하게 만드는 직, 간접적인 동인이 되어 이야기에 긴장감을 주는 동시에 긴밀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의 결합에서 구비설화만이 가지는 특징적 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

또 「사명당과 세 여자」라는 설화도 보면 위의 설화들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세 여인의 이름이 임채운(누이), 황현옥(유촌선생의 딸), 전보배(전불산대 딸)로 나타나고, 피살된 아랑도 민동옥으로 이름이 나타난다. 그리고 후반부도 사명당을 따라 직지사로 향한 세 여인이 연화도에서 사명당을 극적으로 만나고 거기서 함께 무예를 익힌 세 여인은 전쟁이 일어나자 각각 이순신, 권율, 광재우 등의 참모장이 되어 사명당과 함께 힘껏 싸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⁴³⁾는 사명당이 등장하는 결론이 있어 전술한 설화처럼 미완성의 설화가 아닌 완결된 설화로서 구체성을 띠고 있다.

경남지방에 유포된 사명당 설화에는 밀양부사의 딸이 사명당을 사모하는 화소가 상당부분이 있다. 위의 설화들 처럼 밀양 부사의 딸이 아랑이라고 밝혀진 것도 있고, 아랑이라고는 밝혀 있지 않지만 밀양 부사의 딸이 사명당을 사모하여 구혼하나 거절 당하여 스스로 자살한다는 것도 있다.⁴⁴⁾ 이러한 아랑전설은 사명당 일화와 결합하여 사명당을 더욱 극적인 인물로 만든다. 이러한 결합에서는 사명당은 아랑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그녀의 청혼을 거절하며, 아랑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으로 인해 고민하던 중에 그 고을의 통인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고 정절을 지키다 죽게 되는 스토리를 가지는데,

43) 구비문학대계, 7-1, pp. 587-622, 사명당과 세 여자.

44) 사명대사(四溟大師) 일화, 한국구비문학대계 8-7, pp. 536-537.

아랑전설에서 처럼 범인을 색출하는 神異한 요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아랑이 중심인물이 아니라 아랑에 관한 화소는 사명당을 더욱 돋보이게 하거나 사명당에게 출가동인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란 동안 큰 공을 세운 이순신, 권율, 광재우 장군들도 실존인물이지만 이들의 공과 업적에 대해 더욱 신이한 모티브를 주기 위해 가상의 인물인 세 여자가 이들의 참모장이 되었다는 화소를 첨가하였다.

다음은 사명당의 도술적인 능력에 관한 것인데, 일본에 강화사신으로 가신이한 능력으로 왜왕을 굴복시켰다는 것이 주 내용임은 문헌설화와 별 다를바 없으나 이야기의 전개과정에서 많은 침삭과 변이를 거쳐 형성되고 있다.

사명당이 숙종대왕께 자청해서 팔도도관사를 제수받아 일본에 들어가는 도중 사명당이 증이라고 업수이 여기는 동래부사를 처치하였다. 일본으로 들어간 사명당은 왜왕으로 부터 병풍의 내용 암송, 무쇠 말을 타고 바다를 돌아다니라는 것, 솥불로 달구어 논 구리 집에 들어가라는 것, 솥불로 안을 채운 구리 말을 타라는 것 등의 시험을 가볍게 통과하고 소낙비를 뿌려 왜왕의 입에 들어 가게 하니 견디지 못한 왜왕이 항복을 함으로, 사명당은 해마다 조선에 인피 가죽 삼백 장으로 조공을 드리라고 명령하였다. 해마다 인피 가죽 삼백장으로 조공을 하니 일본의 손이 끊어질 것 같아 그 대신 일본은 다시 금은동철 삼백 관석음 조선에 조공하겠다고 했다가 또 돈이 마르므로, 다시 사람 삼백 명씩 부산에 와서 본을 서게 해달라고 해서 허락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조선을 염탐해 가서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었다.⁴⁵⁾

위의 설화는 사명대사의 도술적 이적들을 열거하고는 있으나, 선조를 숙종임금으로, 임란 뒤에 행해진 일이 아닌 임란 전의 일로 시대적 배경을 잘못 설정하였고, 인피 삼백장의 조공이 결국 화근이 되어 임란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이야기가 변이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화자의 의도적인 변이라기 보다는 착각과 무지에서 온 소극적인 변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설화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은 화자는 무조건적으로 사명당의 편에 서서 사명당을 전지전능한 신적인 존재로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동래부사의 목을 치는 장면도 단순히 공손하지 못한 한 관리에 대한 징계라기 보다는 비겁하고 탁상공론적인 유학자 일반에 대한 분노로 위정자들에 대한 민중의식이 대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5) 구비문학대계, 8-5, pp. 364-368, 사명당 이야기(2).

또 다른 사명대사에 관한 설화로는 사명당이 일본으로 들어가서 병풍의 글을 외는 일, 불에 달군 무쇠 집에서 잤으나 수염에 고드름을 달고 있는 일, 불에 달군 무쇠 말을 타면서 비를 부른 일 등은 여는 사명대사 설화와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이러한 이적들은 서산대사가 사명당이 떠나갈 때 미리 알려주고 방편도 가르쳐 주어 서산대사의 도술적 능력을 더 높이 사고 있으며, 사명당이 왜왕에게 항복을 받는 조건으로 인피 삼백장을 받기로 했는데, 왜가 인피를 다 말할 때 쬐이면 비를 뿌려 인피를 썩게하고, 그리하여 또 인피를 베껴야하고 해서 결국에는 일본의 씨를 말려 멸종하게 되었으며, 그 때에 받은 인피가 해인사에 한 장이 있다.⁴⁶⁾고 하는 설화도 있다.

전술한 설화들에서 인피 삼백 장을 조공한다는 조건으로 왜의 항복을 받고, 그 인피로 인해 일본의 씨가 말라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화소에서는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한 민중들의 감정이 잘 표출되고 있으며, 설화의 어디에도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면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문헌설화 담당층들이 보여주었던 대일감정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밀양군 무안면에서 채록된 설화를 보면, 전반부의 이야기는 사명당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탄생, 학문, 출가, 僧兵將으로서의 공적, 가등청정과외 회담 등이 서술되어졌고, 일본에 강화사신으로 가서 행한 鐵火房, 鐵火馬의 異蹟과 뱀이 우글거리는 목욕탕에서의 목욕, 십리에 펼쳐진 병풍의 讀誦 등은 완전히 허구화되어 서술되고 있어⁴⁷⁾ 역사와 문학이 접목된 현상도 나타난다.

사명당 설화에서 종종 등장되는 또 다른 화소는 서산대사와의 도술을 겨루는 것인데 이때에 승리자는 항상 서산대사이며, 패배자는 사명대사가 된다. 그럼에도 이때에 패배는 사명대사를 더욱 겸손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 패배감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다. 그래서 전술한 설화처럼 사명당이 일본에 강화사신으로 가서 행한 도술들이 모두 서산대사가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사명대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서산대사에게 패배하는 사명당이 일본의 왜왕에게는 간단히 승리를 거둔다는 이야기에서는 민족적 우월감이나 자신감이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46) 구비문학대계, 8-3, pp. 484-486, 사명당.

47) 구비문학대계, 8-7, pp. 491-495, 사명대사 일화(1).

있다.

거창군에서 채록된 설화에서도 사명대사가 서산대사의 소문을 듣고 그 능력을 시험하러 갔다가 몇 차례 서산대사의 능력을 보고도 굴복하지 않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암자에서 곧 죽게될 위기에 있는 신도 50명을 도술을 부려 간단히 구해 내는 것을 보고 서산대사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가 있다.⁴⁸⁾ 이 이야기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명대사를 더욱 인간적으로 대중과 밀접시킨다.

그의 밀양지방에서는 국가에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마다 四溟堂影堂碑에서 땀이 난다는 설화⁴⁹⁾와 사명대사와 당시 영의정이었던 李山海와의 弄詩問答에 관한 설화⁵⁰⁾ 등도 전해진다.

(2) 四溟堂 出家 動機인 「繼母 前妻 所生 殺人譚」

경남 지방에 유포된 四溟堂 說話에서는 사명대사의 출가동기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어 흥미를 준다. 물론 설화에서의 출가동기는 모두 허구화되어 있어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가동기가 사명당설화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설화로 전승된다. 이러한 전승은 민간에서 고래로부터 전해왔던 「계모형」설화에서 그 원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먼저 사명대사의 출가동기를 보면,

7세에 그 할아버지가 교육을 맡아 가르쳤는데, 모든 학문에 精詣하지 않음이 없었다. 일년이 지나매 끝내는 九流의 뜻이 陝隘하다는 것을 느끼고 한탄하기를 “儒道와 世上 典籍들이 어찌 究竟의 법이 되겠는가”하였다. 그리하여 黃岳山 直指寺로 가서 信默和尚의 講下에 몸을 던졌다.⁵¹⁾

13세에 黃柳村 汝獻에게 맹자를 배웠는데, 하루 저녁에는 읽던 책을 덮고 탄식하기를 “俗學은 淺陋하여 世緣에 膠擲하거늘 어찌 無漏의 학을 공부함만 같겠는가”하고 곧 黃岳山 直指寺로 가서 信默和尚에게 禮하고 머리를 깎았다.⁵²⁾

48) 구비문학대계, 8-5, pp. 244-248, 사명당 이야기(1)

49) 구비문학대계, 8-7, pp. 495-497, 사명대사비의 땀.

50) 구비문학대계, 8-7, pp. 498-535, 사명대사와 이산해의 시 문답.

51) 海眼, 四溟大師行蹟.

52) 許筠, 海印寺 石藏碑文.

고 전해진다. 사명당은 儒學이 俗學이라고 생각되어 만족할 수 없으므로 학문적 만족을 위해서 無漏의 학인 불교를 선택해 출가를 한 것으로 되어있다. 물론 그는 결혼하지 않았고 속세에서 벼슬을 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명백한 출가동기가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설화에서 사명당의 출가동인은 매우 흥미롭게 전개된다. 그의 출가동인은 평범한 것이 아닌 극적인 모티브를 갖고 있는데, 그러한 극적 모티브가 바로 「계모 천처 소생 살인담」이다.

사명당 출가동기로서의 「계모 천처 소생 살인담」의 줄거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임진사는 본처가 아들 하나를 남기고 먼저 죽었으므로 후처를 얻었고, 후처의 몸에서 아이를 또 얻는다. 아이가 생긴 후처는 본처의 아들이 결혼하는 날 노복을 사주하여 목을 베게하는데, 범인으로 몰리는 것은 새신부로 그의 간부가 있어 신랑을 죽인 것으로 오인 받는다. 임진사 또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새신부는 집을 나가 방물장사로 전전하면서 결국 신랑을 죽인 범인을 찾아내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다. 이에 격분한 임진사는 후처와 아이를 한 곳에 가두고 불살라 죽여버리고는 그 길로 출가하고 도를 닦아 고승인 사명대사가 되었다.

이 설화가 갖는 의미는 물론 사명대사의 출가동인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만은 전체적인 줄거리에서 출가한 사명대사의 행적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이야기의 본지는 「계모 천처 소생 살인담」에 집중되고 있다.

문헌 설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이야기가 형성되고 민간에 유행하게 된 것은 고소설 『사명당전』의 영향이 컸으리라 생각된다.

고소설 『사명당전』의 내용을 보면 후반의 사명대사가 되어 승병장이나 강화사신으로서 그가 행한 업적 보다는 전반부인 사명대사 출가 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모형」 설화와 비슷한 내용이면서도 더욱 잔인하고 충격적인 사건임으로 인해 민간에 흥미를 주어 널리 유포되었고, 후반의 이야기는 사명당의 실제 행적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에 흥미가 약화되어 잊어버렸거나, 전후반의 이야기가 분리되어 구술되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최운식은 “계모설화의 전승양상 및 구조와 의미”에서 계모설화의 유형을, 착한 계모 이야기—개과천선한 계모형, 천성적으로 착한 계모형.

악한 계모 이야기—어린 아들을 버린 계모형, 난제를 부과하는 계모형,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형, 콩쥐팥쥐형, 딸의 不貞을 꾸민 계모형, 新房의 아들을 죽인 계모형, 子婦의 不貞을 꾸민 계모형, 새 사위를 죽이려는 계모형, 신부를 바꿔치기한 계모형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중 「新房의 아들을 죽인 계모형」의 이야기는 전술한 내용과 비슷한 유형으로 그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던 소년이 어머니를 여의었다.
- 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소년은 계모를 맞이하게 되었다.
- 다) 계모가 전실 소생의 아들을 미워하여 장가가는 날 죽이기로 하고, 매수한 종을 시켜 신방에 든 아들의 목을 베어 오라고 하였다.
- 라) 종은 신부집으로 가서 몰래 신방에 든 신랑을 불러낸 다음, 가는 도중에 죽인 부정한 남자의 시체를 신방에 넣어 두고는 돌아와 계모에게 신랑의 목을 베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신랑은 종과 함께 멀리 도망하여 숨어서 살았다.
- 마) 신부의 아버지는 딸에게 情夫가 있어서 그자가 신랑을 죽인 것이라 믿고 딸을 죽이려 하였다.
- 바1) 신부는 男裝을 하고 신랑집 근처로 가서 여러 가지로 수소문하여 신랑을 죽인 범인을 알아내어 누명을 벗었다.
- 바2) 시아버지는 사실을 알고 계모를 죽이고 집을 나갔다.
- 사) 신부는 첫날밤에 임신한 아이를 낳아 기르며 혼자 살았다.
- 아) 신부는 장성한 아들의 노력으로 시아버지와 남편을 만나 함께 잘 살았다.⁵³⁾

상기한 설화의 줄거리와 사명대사 이야기의 「계모 전처 소생 살인담」은 비슷한 줄거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라) 단락은 사명대사 이야기에서는 신랑의 목을 베는 것으로 되었고, 바2) 단락도 계모를 죽이고 집을 나간다는 것은 같으나 중이되었다는 것이 더 첨가된다. 그러므로 자연히 사)와 아) 단락은 제외되며, 사명대사로서의 후일담이 첨가되어진다.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형」과 사명대사 이야기 중 「계모 전처 소생 살인담」은 동일한 유형의 이야기이면서도 “행복한 결말”과 “비극적 결말”로 끝난다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민담은 대체로 “행복한 결말”을 추구하고, 이러한 유형의 이야기에서의 주인공은 신부가 되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는 죽지않고 행복한 재결합을 갖게 되고, 사명대사 이야기에서는 사명대사의 출가 동기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랑과 신부, 계모와 전처

53) 최운식, 계모설화의 전승 양상 및 구조와 의미, 한국설화연구, 집문당, pp. 178-195.

소생의 자식들까지도 다 죽어 속세와의 절연이라는 비극적 결말이 유도되었다.

민족의 구원자나 영웅으로 인식되는 사명당의 출가 동기에 극적인 모티브를 갖게하는 것이 일반 민중들의 기호와 맞아서 고소설에서 이러한 「계모형」 설화를 수용하고 고소설의 독자층이 설화 담당층으로 확대되면서 사명대사 출가 동기로서의 「계모 전처 소생 살인담」이 민간에 전승되었다고 하겠다.

경남 지방에 유포하고 있는 사명대사 출가 동기로서의 「계모 전처 소생 살인담」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고소설 『사명당전』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선조 때 임승지는 당쟁의 소용돌이에 물려 벼슬을 사양하고 밀양 동촌으로 가솔을 데리고 낙향하다.
2. 아들 유정은 총명하여 13세에 七書를 다 배우고 15세에 周易을 해득하니 神童이라고 하다.
3. 유정은 17세에 이참판의 딸과 정혼하고, 진주부에서 실시한 향과에 응시하여 장원급제하니 임진사라고 칭함을 받다.
4. 이참판의 딸과 결혼한 뒤 서울에서 실시한 太平科에 응시하여 白牌 하나를 얻어온 뒤 아들을 낳다.
5. 임진사의 아버지는 나라를 걱정하다 죽고 어머니도 잇달아 죽어 삼년 동안 시묘를 삼다.
6. 임진사는 나라 안이 어지러워지자 과거볼 것을 포기하고 가정을 다스리고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며 세월을 보내다.
7. 임진사의 아들이 10여세가 되었을 때 부인이 병을 얻어 죽다.
8. 임진사는 친구들의 간곡한 간청으로 김참판의 딸과 결혼을 하다.
9. 김씨 부인은 婦道를 다하며 전처 소생을 애중히 키우던 중 삼년만에 아들을 낳다.
10. 김씨부인은 자신의 아들이 점차 자랄수록 전처 소생에게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다.
11. 임진사의 나이 36세, 큰 아들의 나이 16세 때 김씨 부인은 딸을 낳고, 큰 아들은 밀양 개골에 사는 한명선의 만딸과 결혼하게 되다.
12. 첫날 밤에 신랑이 머리가 끊기는 참변을 당하다.
13. 임진사가 자식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자 그 부인이 신부의 소행이라고 말하며 신부를 벌하지 않고 옴을 나무란다.
14. 김씨 부인은 하인들이 관가에 고발하고자 하였으나 모든 것을 안 뒤에 고발하자고 하여, 먼저 시신을 가져와 장사지내게 하다.
15. 신부는 자살하려다 누명을 벗고 자살하겠다 결심하고 패물과 婚書紙를 챙기고 밤에 몰래 가출하다.

16. 신부는 방물장사가 되어 전국을 탐문하다가 그 해 설달 그믐에 진주에 이르러 늙은 내외가 사는 집에 들어갔다 그 내외의 수양딸이 되다.
17. 그 집에서 여러 달을 묶고 있는데 하루는 노인이 자면서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잠꼬대하는 것을 듣고, 이튿날 노파가 없는 틈을 타 노인을 유도심문하고 칼로 위협해 그 노인이 남편을 죽인 범인임을 자백받다.
18. 노인 이춘삼은 자기 아내와 김씨 부인이 종문서와 이십석 추수를 주겠다는 감언이설에 끌리어 주인 도령을 죽이고 그 머리를 김씨부인에게 주었고, 김씨부인은 그 머리를 항아리에 넣어 다락 속에 두었다고 말한다.
19. 노파가 돌아와서 그러한 사실이 발각됨을 알고 남편과 서로 싸우다 둘 다 죽다.
20. 한씨 부인은 밀양에 와서 시어머니의 묘소에 와 있는 임진사를 만나 과거지사를 이야기하다.
21. 임진사와 한씨부인은 집으로 돌아와 다락의 항아리 속에서 생시와 같이 눈뜨고 있는 아들의 머리를 발견하다.
22. 한씨부인은 누명을 벗었다고 하고는 자결하다.
23. 임진사는 종들에게 종문서와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자기집을 떠나게 하다.
24. 친정에서 돌아온 김씨부인과 그 아들 딸을 결박해 방안에 가두고, 또 아들의 머리와 며느리의 시신도 방안에 넣어 집에 불을 질러버리고는 집을 떠나 충청도를 거쳐 금강산의 표훈사에서 서산대사를 만나 제자가 되어 불가의 도학을 배우다.
25. 이하는 중이된 임진사가 임진왜란 동안 승병을 모아 활동한 것과 일본의 강화사신으로가서 풍신수길을 감동시키고 조선 사람으로 포로가 된 5,000여명의 사람을 데리고 나와 선조로부터 四溟堂이란 호를 하사 받았다는 것인데, 이하의 전개는 문헌설화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⁵⁴⁾

유학자로서 자신의 의지가 분명하였고, 학문도 높은 경지에 이르렀으며, 가업도 유복했던 임응규가 그 당시에 천시를 받고 있던 불가에 귀의하여 중이된 배경으로 학문적 만족을 위해 출가했다는 단순한 출가 동인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쉽사리 납득될 수 없었으며, 민간의 영웅으로 숭상받고 있는 사명당을 더욱 극적인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충격적인 극적 모티프가 필요하였기에 고소설 『사명당전』과 같은 허구적인 이야기가 형성되었으며, 동일한 이유로 해서 민간에 쉽게 공감되어 유포되었다고 생각된다.

경남지방에 유포되고 있는 사명당 출가 동인으로서의 「계모 전처 소생 살인담」은 고소설 『사명당전』과 동일하게 구연되지는 않지만 설화마다 11

54) 사명당전, 永和出版社, 舊活字本 古小説全集 21, 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pp. 115 -166.

(임진사 재혼), 12(아들 결혼 첫날 밤에 목 끊김), 16(신부 범인을 찾기위해 방물장사가 됨), 18(범인 자백), 21(머느리와 임진사 향아리 속에서 잘린 머리 확인), 24(후처와 거기서 난 자식들을 불태워 죽이고 출가)의 화소는 거의 빠지지않고 나타나고 있어 민간에서 느끼는 흥미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한다.

경남지방에 유포하고 있는 사명당 출가동인으로서의 「계모 전처 소생 살인담」의 내용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⁵⁵⁾ 그 중 사명당의 생가가 있는 밀양 지방에서 구전되는 설화의 내용을 요약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무안면 고나리 마을에 사명당이 진사 벼슬을 하며 안락하게 살다.
2. 만아들이 장가를 간 첫날 밤에 목을 베이고 죽다.
3. 신부의 간부가 있어 죽였다고 소문이 났다.
4. 사실은 계모가 전처 자식을 죽일려고 종에게 돈을 주어 시킨 것이다.
5. 사명당은 그 길로 훔쳐 죽는다고 하여 방문을 닫고 두문불출하다.
6. 신부가 시가로 와서 정성껏 시부모를 모시려 하나 거절당하다.
7. 신부는 누명을 벗고 죽고자 결심하고 방물 장사가 된다.
8. 진주의 한 할머니가 사는 집에 머물다가 할머니가 자면서 이상한 잠꼬대를 하는 것을 듣고 수상히 여겨 그 집의 수양딸이 되다.
9. 할머니에게 자신의 과거지사를 남의 일 처럼 이야기하니 할머니는 신부의 간부가 죽인 것이 아니더라는 말을 하다.
10. 신부는 단도칼을 빼 말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 하여, 할머니로부터 그 집 영감이 돈에 팔려 후처의 부탁으로 목을 쳤다는 것과 그 머리를 다락 속 향아리에 넣었다는 자백을 받다.
11. 그 칼로 영감과 할머니를 죽이고 밀양 시가로 와서 사명당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여 향아리 속의 머리를 발견하다.
12. 분함을 참지못한 사명당은 재처와 그에게서 난 자식들을 방에 가두고 불을 놓아 죽여 버리고, 그 길로 출가하여 묘향산으로 가서 서산대사를 만나 도술을 배워 입란이 일어나자 왜국에까지 갔다.

55) 구비문학대계, 8-7, pp. 333-340, 사명당의 출가 사연과 표충사의 유래.
 8-7, pp. 535-536, 사명대사 어머니 일화.
 8-8, pp. 176-182, 임대장과 한을 푼 머느리.
 8-14, pp. 495-500, 진실 아들 죽인 계모.
 8-14, pp. 523-527, 사명당 출가 동기.

사명당, 朴址根(남, 80) 구연, 밀양군 상동면 가곡리, 1988. 7. 11, 김승찬 채록.
 사명당, 安日洙(남, 66) 구연, 밀양군 상동면 평류리, 1988. 7. 11, 김승찬 채록.
 사명당, 河德濂(남, 70) 구연, 청도면 두곡리 청마마을, 1988. 7. 13, 김승찬 채록.
 사명당 얘기, 문삼근(남, 61) 구연, 하동군 진교면 월문리, 1984. 7. 20, 김승찬 채록.

13. 밀양 고나리 아래 관동이란 곳에 표충사란 절이 있었는데 한 때 빈대가 많아 살지 못하고 절을 밀양 단장면으로 옮겼다. 이 표충사는 사명당을 위해서 지은 것이다.⁵⁶⁾

전개한 설화는 고소설 『사명당전』과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11에서는 신랑을 죽인 영감과 그 활미를 신부가 직접 죽인 걸로 되어 있으나 고소설 『사명당전』에서는 영감과 활미가 싸우다가 서로를 죽이는 걸로 되어 있고, 13에서 표충사의 유래가 삽입된 것 등에 차이가 있으나 채록이 밀양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표충사 유래담이 첨가되었을 것이다.

하동군 악양면에서 채록된 설화도 위의 내용과 유사하날 범인인 영감 활미가 죽는 부분은 없으며,⁵⁷⁾ 또 잘린 머리가 다락의 향아리 속이 아닌 대청 밑에서 썩지도 않고 눈을 뜬 채로 있다고 하는 것도 있다.⁵⁸⁾

하동의 진교면에서 채록된 것에는 신부가 정월 초하루날 진주의 늙은 부부의 집에서 자는데 영감이 “내가 안그랬다. 마님이 시켜서 그랬다.”하는 잠꼬대를 했는데, 그 잠꼬대를 한 원인은 신랑의 혼이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해 죽은 혼이 범인을 색출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도 있다.⁵⁹⁾

밀양의 삼랑진읍에서 채록된 설화는 목을 벤 범인이 후처를 따라온 미비종(시집올 때 데리고 온 종)이며, 이 종이 주인의 명을 거절할 수 없어 했다고 되어 있으며, 며느리가 방물장사가 되어 전라도 지방을 갔는데 그 지방의 모심기 노래에 임진사택 며느리 간부가 새신랑을 죽였다는 내용의 노래가 불리워지고 있었다고 한다.⁶⁰⁾

밀양의 무안면에서 채록된 설화에서는 사명대사의 아버지가 첫날 밤에 죽고, 어머니가 원수를 갚기 위해 방물장수가 되어 진주의 여관방에서 잠을 자는데 그 여관방 주인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범인임을 밝혀내어, 남편의 원수를 갚고 그 집 헛간 독안에 감추어진 머리도 찾았다.⁶¹⁾고 하는 변이형도

56) 구비문학대계 8-7, pp. 333-340, 밀양군 상남면 설화, 사명당의 출가 사연과 표충사의 유래.

57) 구비문학대계, 8-14, pp. 495-500, 전실 아들 죽인 계모.

58) 구비문학대계, 8-14, pp. 523-527, 사명당 출가 동기.

59) 사명당 얘기, 문삼근(남 61세), 경남 하동군 진교면 월문리, 84, 7월 김승찬 채록.

60) 구비문학대계, 8-8, pp. 182-188, 임대장과 환을 쫓는 며느리.

61) 구비문학대계, 8-7, pp. 535-536, 사명대사 어머니 일화.

있다.

경남지방에 유포되고 있는 대부분의 설화들은 앞에서 서술한 구할자본 영화출판사의 고소설 『사명대사전』의 이야기이고, 그외의 지역에서는 구할자본 세창서관본인 『서산대사와 사명당전』에 있는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사명당의 결혼한 첫날밤에 목베여 죽는 것이 아니라 효자인 아들이 계모에 의해 직접 죽임을 당하여 다락의 옛항아리 속에 시체가 있고 그것을 부인의 소행으로 짐작한 사명당은 부인과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입산하였다는 내용도 있으며,⁶²⁾ 구할자본 영풍서관본인 『임진왜란 사명당전』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아들의 혼인날 아들의 목이 잘려 죽었으므로 사명당이 직접 범인을 찾으러 나가서 결국 자기 집에 있던 노비가 재처의 사주에 의해 죽었음을 알고, 집으로 돌아와 머리를 찾아내어 놓으니 재처가 자살했고 이로 인해 사명당은 입산하여 중이 되었다⁶³⁾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

경남지방의 구연자들은 사명당이 후처에 의해 자식이 죽고, 후처와 후처에서 난 자식들을 죽인 충격으로 중이 되어 세상과 인연을 끊고 불도에 정진해 도승이 되어 오늘날 사명당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씩 불을 놔서 집도 딱 태아비리고 그는 전답은 하인에게 싹 갈라 조비리고, 그 자기는 어디로 갔는고 절간으로 들어갔네. 절간으로 들어가서, 그 때는 약 사십살 됐는다. 어떻게 고마 이 속세의 잡념이라는 거는 일절없고 후생길이나 닦는다 하고 불공을, 그 불도에다 어떻게 믿었든지간에.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참 도승이 되고 해가지고, 그 사명당이라는 사람이 그이 말이지……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돕고 허는 그런 유명현 분이라 말이라.⁶⁴⁾

임철호는 구비설화에서 사명당이 유가의 신분에서 가화로 인해 속세를 떠나 입산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설정은 또 다른 시각에서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제시해 주는데, 이것은 유불의 갈등을 첨예화시켜 유교적인 세계를 부정하면서 불교적인 세계를 긍정화시키려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명당은 유교적인 세계에서는 자식의 죽음과 그로 인해 부인과 자식을 죽여야 하는 비인간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사명당이 이러한 유교적인

62) 구비문학대계, 1-7, p. 962, 서산대사와 사명당.

63) 구비문학대계, 6-2, p. 143, 사명당은 임진사.

64) 구비문학대계, 8-14, p. 527, 사명당 출가 동기.

세계를 벗어나 불교의 세계로 들어간 다음에는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으며, 뿐만아니라 유가인들이 하지 못했던 국가적인 차원의 일을 수행했다는 것으로, 유교와는 상대적인 차원에서 불교적인 세계를 극단적으로 긍정화시키려는 의도에서 형성된 이야기⁶⁵⁾라고 하였다.

임철호의 논리에 수긍은 가나 유교와 불교의 극단적인 대립과 불교적인 세계를 극단적으로 긍정화 시키려는 의도에서 이야기가 형성되었다는 표현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임진왜란 동안 유학자로서의 관료들은 그들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시각은 일반 백성들이 갖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사명당이 강화사신으로 갈 때 동래 부사가 사명당이 중이라서 무시했다가 사명당에 의해 목이 베어졌다는 화소가 종종 구연되는데, 이와 같은 화소는 구연자들에 의해 유학자의 무능이 직접 질당 당하고 있는 것으로 설화의 표면적인 문장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계모 전처 소생 살인담」을 구연하는 구연자들에게서 유·불의 대립과 불교에 대한 유교의 상대적인 폄하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의도적인 진술은 찾을 수 없으며, 단지 속세에 대한 허무감으로 인해 속세와 인연을 끊기 위해서라는 개인적 이유만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남지방에서 四溟堂 出家 動機로 구연되고 있는 「계모 전처 소생 살인담」은 이야기 전부가 허구화되어 있어 사실무근이다. 15세 전후에 부모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에서의 허무와 더욱 근원적인 학문 추구를 위해 출가를 했다는 사명당의 행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끔찍하고도 잔인한 계모의 이야기가 사명당의 이야기에 결합되어 그의 출가에 대한 뚜렷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역사적 사실에서 본 그의 출가원인은 凡人的 立場에서 볼 때는 무언가 미흡하다고 느껴졌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겪는 부모의 평범한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에서의 허무라는 것과, 유교주의 사회에서 유교가 세속의 학문으로 인생의 연원을 궁구할 수 있는 학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은 될지언정 문학적 모티브로는 충족될 수 없었기에 민간에서 민속적 영웅으로 숭상하는 사명당이란 인물에 걸맞는 흥미를 수반한 극적 동기가 필요했다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고, 부차적인 목적은 사명당이 살았던 시대적

65) 임철호, 앞의 책, p. 290.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유교적인 현실세계의 부정과 탈속적인 불교세계의 긍정이라고 하겠다.

IV. 結 論

전술한 사명당설화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 속의 사명당은 불교가 폄박받고 천시되던 시기에 유학자의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잇단 죽음과 철저히 현실적인 유학이 淺陋하다고 느껴 소년의 몸으로 無漏의 學이라고 생각한 불교에 귀의하여 승려가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불승의 몸으로 僧兵을 모아 왜와의 싸움에서 팔목할 만한 전공을 세웠으며, 한편으론 대화를 통해서 왜적들을 감복시켰다. 휴전 중 가등청정과 의 담판에서 남긴 일화나 종전 뒤에 조정의 유자 관료들을 대신하여 일본으로 사신가서 그가 얻은 업적과 행동들은, 그가 유교중심적 사회에서 유자가 아닌 불자였기에 더욱 상징적 의미를 띠고 문학 속의 인물로 형상화될 수 있었다.

둘째, 역사적 인물인 사명당이 문학 속의 인물로 형상화되는데 있어서도 문학담당층들의 신분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데, 문헌설화 담당층의 대부분인 儒者 지식인 계층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사실성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성립시키며, 구비설화 담당층인 일반 민중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더라도 허구적 구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성립하고 있다.

조선후기 문헌설화집에 실린 어우야담계를 비롯한 5편의 야담들은 거의가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내용들이며, 흥만종의 「旬五志」나 就惠의 「취혜문고」 속의 내용들에 보면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는 있으나 내용에서 많은 변이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적 사고를 거쳐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旬五志」나 「취혜문고」를 포함한 문헌설화 속에서 倭將, 가등청정, 왜왕 등에 대해서 사명당과 동일한 인격을 지닌 자들로 인식되거나 적대감이 노출되지 않고 있어 그들의 역사의식의 결여란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사명당 개인에 대한 폄하하기 보다는 조선조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유교중심적 사회에서 불교에 대한 거부적 현상과 불자인 사명당의 업적을 통해 상대적으로 儒者인 관리들의 무능이 폭로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며, 또 그들은 일반 민중들 처럼 직접 전쟁의 참혹함을 겪지 않아 왜적들의 잔인함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고 하겠다.

세째, 구비문학에 오면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성립된 이야기든 완전히 허구화된 이야기든 간에 일본과 일본인들에 대한 태도는 한결같이 부정적이며 극단적인 적대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사명당과 굴욕적인 패배자 일본인이 묘사되어 진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성립된 이야기로는 주로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일왕과 대결을 하는 사명당 이야기가 전승되는데, 문헌설화와 그 궤를 같이하면서도 완전히 변이되었고 일본을 멸망시키는 화소와 일왕을 징계하고 승리하는 화소가 많이 첨가되었다. 이것은 민중들이 일본에 대해 적대감정을 유감없이 발휘한 결과이다.

완전히 허구화되고 있는 사명당설화에서는 사명당에 관한 흥미소가 작용해 불가능한 일을 하는 영웅이나 신인의 모습, 가능한 일을 하는 고승의 모습, 덜 성숙되어 범인과 같은 일을 하는 인간적 모습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사명당은 민담적 인물로 전이되고 있다.

네째, 경남지방의 사명당설화는 더욱 다양한 양상을 띠고 전승되고 있는데, 그의 고향인 밀양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허구가 결합되어 하나의 작품을 이루고 있는 것도 있으며, 또 고래로 부터 밀양을 비롯한 경남일대에 전승되고 있는 아랑전설이 사명당설화와 결합된 것도 있다. 아랑전설과 결합된 사명당설화는 사명당을 사모하는 많은 여인이 등장되고 이들 상호간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노출되어 연애소설의 양식을 띠고 있어 매우 특이하다. 여기서 아랑의 죽음은 사명당의 출가 동기가 되며, 사명당의 출가로 인해 비구니승이 된 여인들은 임란에서 활약한 장군들의 아장이 되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이러한 모티브는 구비담담층들이 가진 오락적 요소와 애국적 요소가 표출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다섯째, 경남지방에 전승되는 사명당설화 중에는 사명당 출가동기를 설

명하기 위한 「계모 전처 소생 살인담」이 전체 사명당설화 전승양의 절반 이상이 되고 있으며, 그 변이형도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설화의 내용은 구활자본 고소설 영화출판사본 『사명당전』과 매우 유사한데, 이것은 민간에 전승되던 「계모형」 설화가 고소설 『사명당전』에 수용되었고, 고소설 『사명당전』의 줄거리가 다시 구비설화에 수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계모형」 설화가 흔히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데 반해 사명당 출가 동기로서의 「계모 전처 소생 살인담」은 비극적 결말로 끝이 나며 내용에 있어서도 「계모형 설화」보다도 더욱 끔찍하고 잔인하다.

이와 같은 설화 형성의 일차적 목적은 유학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던 사명당의 평범한 출가 동기는 역사적 사실은 될 수 있으나 문학적 모티브로서는 충족될 수 없었기에 구비전승층들은 “민족의 영웅”으로 숭상되는 사명당의 출가 동기에 흥미를 수반한 극적 모티브를 부여한 것이며, 부차적 목적은 사명당이 생존했던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유교적 현실세계의 부정과 탈속적인 불교세계의 긍정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